

“비만약 시장 1000억弗로 커진다” 노보노·일라이릴리 ‘주가 벌크업’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다. 비만 치료제 열풍이 올해도 지속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에서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NVO)의 주가는 5.25% 오른 114.7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제약사 일라이릴리(ILL)는 0.10% 오른 645.61달러에 마감했다.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1년간 두 회사 주가는 각각 64.9%, 89.6% 급등했다.

비만 치료제 열풍이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날 노보노디스크는 지난해 4분기 당뇨병·비만관리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48% 증가한 613억 덴마크 크로네(약 11조8413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표 제품 ‘위고비’가 313억 크로네(약 6조44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1025억 크로네(약 19조7917억원)다. 회사 측은 “올해도 영업이익이 최대 28% 증가할 것”이라며 “위고비의 생산량 증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라이릴리가 보유한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도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6월 출시된 마운자로는 그해 3분기 매출이 1억8700만 달러(약 2477억원)에 그쳤지만, 1년 만



두 업체 모두 사상최고가 경신 일라이릴리 시총, 테슬라 넘어

노보노 ‘위고비’ 매출 3배 성장 릴리 ‘마운자로’도 두배 더 팔려 “개발경쟁 심화 땀 수익성 악화”

에 분기 매출이 14억930만 달러(약 1조9850억원)까지 늘었다. 일라이릴리는 최근 테슬라를 밀어내고 세계 시가총액 9위에 이름을 올렸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해 9월부터 유럽 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비만치료제 테마가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만 치료제가 당뇨,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에도 효

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다. 이지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노보노디스크의 임상 결과를 보면 위고비 치료군의 뇌졸중·심근경색 발생률이 약 20% 줄었다”며 “비만 치료제 영역에서 올해 다양한 연구개발 모델링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지난해 60억 달러(약 8조원) 수준에서 2032년에는 1000억 달러(약 133조5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추가 상승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머크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글로벌 제약사가 잇달아 비만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도 위협 요인이다. 후속 제품이 나온다면 가격 경쟁이 심화하면서 수익성이 예전보다 악화할 수 있다.

제약사들이 경쟁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는 것도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일라이릴리의 R&D 비용은 24억1000만 달러(약 3조2140억원)가량으로 지난해보다 34% 늘었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 두 곳을 사들이는 데 16억 달러(약 2조1352억원)의 비용을 썼고, 최근에는 새 비만약 후보 물질을 최대 2억3500만 유로(약 3418억원)에 사들였다. 전효성 기자

제15회 한국IB대상 ... 종합대상에 한국투자증권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후원한 '제15회 한국IB대상' 시상식이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열렸다. 한국투자증권이 종합대상(금융위원대상)을 받았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이동 상정KPMG 재무자문부문 대표, 장범식 송실대 총장, 박대준 삼일PwC 탈부문 대표,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김도영 김앤장 변호사, 김정호 한국경제신문 사장, 김형윤 KB자산운용 대체투자 부문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박정호 KB증권 기업금융1본부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성주완 미래에셋증권 IPO 본부장, 하진수 JP모건 수석본부장, 이진하 MBK파트너스 부사장, 윤병문 NH투자증권 IB사업부 대표,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강순배 국민은행 부행장, 김성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김범준 기자

지역은행 손실 쇼크 美국채·금 다시 뜬다

침체 우려에 안전자산 주목

미국 중앙은행(Fed)이 올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고, 미국 지역은행의 대규모 손실 발표가 이어지자 미국 국채, 금 등 안전자산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거래소에서 'Direxion Daily 20+ Year Treasury Bull 3X Shares ETF'(TMF)는 3.04% 오른 59.30달러에 장을 마쳤다. TMF는 20년 이상 미 국채 수익률의 3배를 추종하는 ETF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국내 투자자는 TMF를 3120만 달러어치 순매수했

다.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금 ETF인 'iShares gold trust'(IAU)와 'SPDR Gold Shares'(GLD)도 오름세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장 잡여자들 사이에 경기 침체와 다시 마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면서 미 국채 등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됐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경기 지표나 지정학적 변수에 따라 채권 가격이 바뀔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오는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와 4월 전후 단기금리시장 불안 발생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미국 주식 투자는 당분간

쉬어가는 것이 좋다는 분석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매그니피센트7’(미국 대형 기술주 7개 종목)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는 장기적으로 여전히 투자할 만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진우 메리츠 투자전략팀장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라 2월 한 달간은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증시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김영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윤이영/배태웅 기자

“바이 코리아” 외국인, 삼성부터 샀다

순매수 톱5 중 삼성계열사 4곳

연초부터 ‘팔자’를 외쳐온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자’로 태세를 바꿨다.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관련주를 바구니에 담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를 3760억원어치 사들였다. 외국인 순매수 1위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가 사들인 종목도 삼성전자였다. 순매수 규모는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외국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3011억8266

만원어치 사들여 순매수 2위에 올랐다.

코스피지수가 올해 들어 4.77% 하락하는 등 가격 매력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다. 최근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도 커져 외국인이 우선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외국계 증권사 CLSA는 “한국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삼성전자 등을 톱픽으로 꼽았다. 1월 외국인은 삼성물산과 삼성에스디에스도 각각 2353억원, 1832억원어치 사들였다. 외국인 순매수

3위, 5위다. 이날 삼성물산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책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며 전날에 이어 7.75% 급등했다. 삼성전자(25.39%)는 물론 삼성SDI(15.23%), 삼성바이오로직스(12.18%), 삼성물산(11.06%) 등 국내 삼성 상장 계열사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상장지수펀드(ETF)에도 돈이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증시 반등 기대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고려하면 국내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며 “대형주 주가가 움직인 이후 중소형주가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지호 기자

日 금리인상 시사에 엔화 ETF ‘후끈’

국내 日 펀드에 923억 순유입 엔화 가치 상승에 환차익 기대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본 투자상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엔화 반등 시 수익을 내는 환노출형 상장지수펀드(ETF)에 돈이 몰리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ODEX 일본TOPIX100'은 올 들어 8.3% 올랐다.

1년 수익률은 26.9%에 달한다. 이 ETF는 일본 토픽스100 지수를 추종하는 환노출형 상품이다. 원·엔 환율이 오르면 추가 수익을 얻는 구조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순자산 규모가 200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12월 27일 상장한 'KBSTAR 미국채30년엔화노출(합성H)'은 상장 시 수익을 내는 환노출형 상장지수펀드(ETF)에 돈이 몰리고 있다.

론 환차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ETF다. 닛케이225지수에 연동하는 'TIGER 일본니케이225'와 테마형 'ETF인 TIGER 일본반도체FACTSET' 등도 엔화 노출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데도 원·엔 환율은 900원대 초반에 머물자 엔화 가치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닛케이225지수는 올 들어 7.61% 상승해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를 11.85%포인트 앞섰다. 최만수 기자

한경 기업경영지원본부 핵심역량

- 기업승계전략
- 명익신택주식

새길을 열어주는

- 이억임머러처리
- 비상장주식평가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 법인전환
- 지배구조개선

기업의 미래를 여는

- 자사주매입 및 사후관리
- 정액지급

대표님,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너무 높아 고민이십니까?

기업의 지분 중 일부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영도세 부담은 한경기업경영지원본부에 맡기세요!
솔루션이 다르면 혜택이 달라집니다!

1644-0095

명익신택주식 컨설팅 상담·문의

한경 기업경영지원본부
hankyungleaders.com